

트럼프 “김정은 신속히 행동해 합의 이뤄야”

한미훈련 연기 10시간 뒤 트윗 비핵화 이전 속 실무협상 촉구 “곧 보자” 3차 정상회담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채 열렸다.

1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원론적인 합의만으로도 박수를 받았고, 2차 정상회담은 ‘배드 딜(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결렬-No Deal)’이 낫다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차 정상회담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 조야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곧 보자”면서 “당신(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실무선에서의 합의가 전제돼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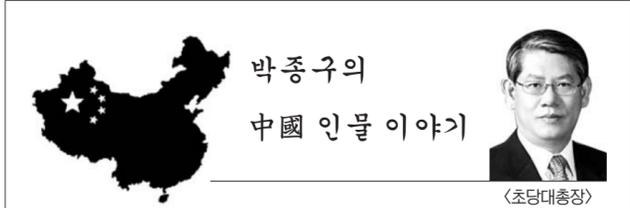
한미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온 연합공군 훈련을 전격 연기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

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구태연하다’며 결렬을 선언한 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등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화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에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체제 보장과 제재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 보장’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로 미국이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해제는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

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실무협상에서 단시간 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신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트윗을 올렸다. 한미가 연합공군훈련 연기를 발표하고 10시간 만에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직접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7〉 여이간

여이간(呂夷簡, 978-1044)의 자는 탄부(坦夫)이며 현 안후이성 봉대에 해당하는 회남로 수주 출신이다. 북송 인종때의 명재상으로 왕조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대대로 관료를 역임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 여몽평은 광복사승과 대리사승을 지냈다. 백부 여몽정은 태조와 태종 밑에서 3번이나 재상을 역임한 거물이었다. 진중이 아들 가운데 중용할만한 인물을 추천하라고 하자 조카 여이간이 재상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함평 3년(1000) 진사에 급제해 강주의 군사주관을 거쳐 통주통판, 빈주지주, 예부원외랑을 거쳐 형부랑중이 되었다. 빈주지주 재직시 농구세(農具稅)를 면제해 달라는 주민

내도록 하였다. 실제로 후일 인종은 이 사실을 알고 유세 집안에 가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033년 유태후 사후 인종이 친정에 나서서 8가지 충고를 하였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뇌물을 금하고, 간사한 아첨을 분별하며, 여색을 멀리하라 등 8가지 충고를 인종은 겸허히 받아들였다. 인종이 북송 왕조 명군의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광화후는 성질이 거칠어 인종과 갈등이 잦았다. 인종의 얼굴을 때리는 일조차 벌어졌다. 그는 황후 폐립에 찬성했다.

1042년 요나라가 남침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개봉에서 낙양으로 천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는 이를 말렸다. 낙양으로 천도하게 되면 요나라가 아무런 저항 없이 황하를 건널 수 있게 되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북송 인종때 명재상...왕조 안정 기여

들의 뜻을 상소해 진중이 농구세를 면제하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예부원외랑 재직시에는 진중이 공궐을 건축하려 하자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축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진중의 신임을 받아 요나라에 사자로 가 양국의 국경 문제를 협상하였다. 이후 지제고로 기용되어 황제의 측근이 되었다.

1022년 진중이 죽고 13세 인종이 즉위했다. 유태후가 섭정에 나섰다. 그는 동중서문하평장사를 거쳐 재상에 올랐다. 권력욕이 강한 유태후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면서 나이 어린 황제를 보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차분히 일의 선후와 경중을 설명해 태후의 동의를 얻어내는 원만함을 보여주었다. 사소한 문제는 넘어갔지만 중요 국사에 관해서는 유태후와 안경도 불사했다. 진중을 추모하는 의식에서 황제가 사용한 모든 것을 태묘에 배향해야 한다고 태후가 주장했다. 그가 답하기를 “어린 인종을 잘 보필하는 것이야말로 진중을 가장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낭비는 선제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인종의 생모인 이씨가 죽자 태후는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재상이 궁중사까지 관여하느라 불편한 내색을 하였다. 그가 “태후께서는 후일 유세 집안의 보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고 답하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그의 뜻을 따라 낙양 천도는 없던 일이 되었다.

1042년 병으로 쓰러지자 사공 및 평장군국중사로 제수되었다. 인종은 자신의 수렴을 잘라 보내면서 “지금 집의 탄수염을 잘라 보내니 빨리 회복하기 바라오”라는 말을 전했다. 당 태종이 장군 이세적을 위해 자신의 수렴을 잘라 약에 쓴 것과 비슷한 일화다. 1044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인종은 3일간 조화를 중지시키고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태사와 중서령에 추증하고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일찍이 재상 왕단은 왕종에게 말하기를 “여이간은 훗날 당신과 더불어 재상직을 담당하게 될 것이요.” 왕종이 그 까닭을 묻자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의 상소문을 읽은 바 있다고 답했다. 왕종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후일 왕종은 여이간이 함께 재상이 되자 조용히 왕단의 말을 전했다. 두 사람은 왕단의 선견지명에 대해 법인이 미치지 못할 바라고 탄복해 마지않았다. 정주에서 여이간이 사망한 후 인종은 조정의 화제가 그에게 이르게 되면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국사를 근심하여 자기 자신을 잊고, 또 만사를 다스리며 천하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배려함에 있어, 어찌 여이간과 같지 않은 인물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요.”

경찰 시위대 고문·성폭행 인정 칠레 대통령 “면죄부 없을 것”

칠레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고문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이러한 의혹을 인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네라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이 있었고, 폭행과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피네라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고문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이번 연설에서 의혹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엄벌을 약속했다. 그는 “(경찰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는 없을 것”이라며 “희생자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했다는 의혹은 1천 여건에 이르며, 유엔과 국제앰네스티는 인력을 칠레 현지에 급파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중이다.

피네라 대통령이 시위대 폭행 경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은 정국 수습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과 연금 개선을 약속했고, 최근에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도 수용했다. 피네라 대통령은 칠레 의회가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이 개헌을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콩 경찰은 18일 새벽 5시 30분부터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홍콩 이공대 교정에 진입해 시위 진압 작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이공대와 인근 지역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실탄을 발사했다. 반정부 시위대가 이날 홍콩이공대학 정문으로 통하는 계단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콩에 경고하나...中, 대규모 테러진압훈련

인민일보 사흘 연속 시위 비판

홍콩 시위가 경찰과 시위대 간 무력 충돌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공안 당국이 홍콩과 인접한 광저우에서 대규모 테러 진압훈련을 실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광저우 공안국은 전날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테러 훈련을 벌였다. 이번 훈련에는 대테러 특수대응팀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등 11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5개의 테러

상황에 맞춰 훈련을 진행했다. 광저우 공안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테러범 진압, 폭발물 처리, 화재 및 유해 화학물질 대응 등 훈련 상황이 담겨 있다. 광저우 공안국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테러 활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했다고 훈련 취지를 밝혔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무력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홍콩 시위대를 향한 경고로 풀이된다. 특히 광저우는 홍콩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훈련 내용 역시 시가지 대

치 상황을 상정해 이뤄지는 등 홍콩 시위를 겨냥한 요소가 많이 눈에 띄었다.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홍콩 시위대를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강화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에도 사흘 연속 1면 논평을 통해 홍콩 시위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마지노선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홍콩의 번영은 중국몽(中國夢)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